

교회개혁 축하

지난 주 여기저기에서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교회 개혁을 축하하는 이야기였다. 페이스북(Facebook)에 오랜만에 사진을 올렸더니 반갑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 분의 장로님께서 개혁 소식을 듣고 교회 장소를 묻는 바람에 페이스북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온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아직 축하 받을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에 일일이 답하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 중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나가셔서 신학교를 꿈꾸며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어려운 길 새로 떠나시는데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어려운 길인가? 그리고 새로운 길인가? 생각해 보았다. 맞는 말씀이었다. 교회를 개혁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장소가 그렇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길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바로 새로운 교회인가? 그저 이름을 새로이 해서 시작한다는 의미보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목사님으로부터의 축하 메시지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 후 며칠 동안 60세에 시카고에서 개혁하시는 목사님, 50세 중반에 선교사로 새로 헌신하신 목사님, 50세 초반에 영국으로 가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는 친구 목사님.... 나 혼자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이 헌신하며 순종해 나가는 소식들을 아울러 듣게 되었다. 얼마나 힘이 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소식이었는지 모른다.

그 때 개혁하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생각났다. 바로 이 컬럼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교회를 개혁을 아무나 하나? 목회자의 헌신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목사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하지만 그 보다 더 힘 있고 중요한 것은 함께 세워 나아가는 성도들의 헌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 내가 받은 축하는 나에게만 향한 축하가 아니라 오레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축하인 것이다.

얼마나 행복하고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나의 짧은 인생에 1권 1호의 주보를 받으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다. 그 이유를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더욱 깊숙이 알게 될 것이다. 감격하며 더욱 행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준비 되어 있지 않지만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릴 교회를 생각하면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더욱 깊이 파고 들 때마다 넘치는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이다.

성경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벌써 그 증거들이 보인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충성을 다할 뿐이다. 그 때에 그 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교회가 개혁되는 일은 축하 드릴만한 일이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